

1	15
---	----

[4 ~ 5]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오늘은 학교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다음 달이 축제인데, 아무런 준비를 못 했잖아. ㉠ 이번엔 우리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학생 2: 맞아. 작년엔 친구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서 호응이 적었잖아. 이번엔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 제대로 준비해 보자. 뭐가 좋을까?

학생 3: 음……. 얼마 전 TV에서 책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였어. 지금과 다르게 수작업으로 정성껏 책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구. ㉡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친구들에게 옛날 책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학생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나도 좋아. 그러면 옛날 책을 직접 구해서 전시해 보자.

학생 3: ㉢ 근데 옛날 책은 아무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진 자료를 함께 전시해 보면 어때?

학생 1: 그거 좋네. 그런데, 전시만 하는 것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뭔가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체험 같은 것 말이야.

학생 2: 그럼, 전시회 한쪽에서 옛날 방식으로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코너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때?

학생 3: 옛날 책 만들기 체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학생 1: 나도 적극 찬성! ㉣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 그런데 옛날 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학생 2: ㉤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면 참고 자료가 있을 거야.

학생 3: 음……. 아까 말했던 TV 프로그램에서 ‘고서 박물관’이라는 곳도 나오던데. 어디, 한번 검색해 볼까?

학생 1: 그래, 찾아보자.

학생 3: (인터넷을 검색한 후) 여기 있다. 이것 좀 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고서 전문가가 전시물에 대해 직접 안내도 해 준다고 하네.

학생 2: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곳이네. 함께 찾아가 보자.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응. 좋은 생각이네.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자.

5. 다음은 동아리 회의 이후에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전 예약하고 전화로 연락드렸던 ○○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학생: (웃으며) 네, 홈페이지에 약도가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전문가: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일 방법이라고 봅니다.

학생: 네,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조언도 듣고자 찾아 왔습니다.

전문가: 그럼, 궁금한 점부터 해결하고 박물관을 관람해 볼까요?

학생: 네, 좋아요. 그런데 옛날 책 제작 방법 중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방식이 있을까요?

전문가: 음……. ‘선장’이라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조선 시대에 대체로 책을 만들던 방식이죠.

학생: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전문가: 선장은 종이들을 끈으로 꿰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를 볼까요? 속지들은 반으로 접고 모은 뒤, 우측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고정시킵니다. 표지에는 문양을 새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와 속지를 끈으로 튼튼하게 꿰매는 겁니다.

학생: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전문가: 네,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며) 그림을 새긴 나무판에 밀랍을 바르고 이것을 표지에 대고 꼭 눌러주어 문양을 새기죠.

학생: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 네, 밀랍을 바르면 종이가 밀리지도 않고 무늬도 더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만들기에다 어렵지 않겠죠?

전문가: 그럼요. 그럼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 설명해 줄게요.

학생들: 네, 선생님.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회의 참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도출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 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얼마 전 시각 장애인이 쓴 스마트폰 사용 체험 수기를 읽었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일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했던 스마트폰 사용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된 나는 이에 대한 글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작성한 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인터넷 신문에 투고하기로 했다.

(나) 글의 초고

얼마 전 시각 장애인의 수기를 읽고 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마트폰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입력한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확인해 주는 기능이 ㉠ 있으며 실제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많지 않다.

시각 장애인들이 음성 지원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터치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의 위치를 ㉡ 확인되고 문자를 입력하는 것은 간단한 행위이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원하는 웹 사이트를 찾아가더라도 찾은 정보가 음성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각 장애인들이 터치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를 파악하고 문자를 입력할 때 음성으로 안내함으로써, 장치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또는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웹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는 기능을 확대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지원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은 일종의 차별이라 생각한다. 그들도 비장애인처럼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 구별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7.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과 그것을 점검·조정한 결과이다. (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글쓰기 계획		점검 및 조정의 결과
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시각 장애인의 체험 수기를 다루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데에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체험 수기를 다루지 않았다.
②	시각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통념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해야겠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장애인과 시각 장애인 간에 인식 차이가 크므로 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대비하며 화제를 제시하였다.
③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을 언급해야겠어.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에서 정보에 접근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④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제시해야겠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방법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그 대신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⑤	시각 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인식 전환보다 스마트폰 대중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므로 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였다.

6.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가 일상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다.
- ② 글쓴이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활동이다.
- ③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활동이다.
- ④ 글쓴이가 글을 통해 의도한 것을 드러내는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
- ⑤ 글쓴이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친교적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8.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 내의 앞 절과 뒤 절을 고려하여 ‘있지만’으로 고친다.
- ② ㉡: 잘못된 피동 표현임을 고려하여 ‘확인하고’로 고친다.
- ③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정보를’로 고친다.
- ④ ㉣: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또한’으로 고친다.
- ⑤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획득’으로 고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업 상황]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작문 과제를 부여하셨다.

작문 과제 1

○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짧은 글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을 고려하여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제시할 것.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할 것.

9.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어르신은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들의 삶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 ②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분들은 지식과 문화를 전승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인 생애 체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③ 혹시 의미 없는 생활로 바쁘신가요?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으시면 어르신에게 눈을 돌려 보세요. 노인 생애 체험은 당신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 ④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 보세요.
- ⑤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팡이가 되어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 생애 체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까웠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셔서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에 대한 사전 강의, 노화 체험, 그리고 체험 나누기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소리를 막는 헤드폰을 쓴 후 친구와 서로 말해 보는 활동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입모양을 분명히 하면서 천천히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 전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나이가 들면 대뇌의 움직임이 젊을 때보다 활발하지 않아 소리가 들려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체험 후에는 자신이 새롭게 안 사실과 체험 후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인 생애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다음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의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맨입[맨닙] ————— ㉠

설날[설:랄] ————— ㉡

좋은[조은] —————

1. ㉠에는 ‘맨입’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2. ㉡에는 ‘설날’을 발음할 때와 ‘좋은’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함께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자료

논일[논닐], 나뭇잎[나문닙], 칼날[칼랄]
늦여름[느너름], 닿은[다은], 닳는[달른]

- | | | |
|---|--------|----------|
| | ㉠ | ㉡ |
| ① | 논일[논닐] | 늦여름[느너름] |
| ② | 닿은[다은] | 닳는[달른] |
| ③ | 칼날[칼랄] | 나뭇잎[나문닙] |
| ④ | 논일[논닐] | 닳는[달른] |
| ⑤ | 닿은[다은] | 칼날[칼랄] |

12.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내용]

발표 1: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무당’은 어근 ‘무당’에 접두사 ‘선-’이 결합하여 ‘서툰’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군말’, ‘군살’도 그 예에 속합니다.

발표 2: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보’는 어근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발표 3: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하다’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 ① ‘발표 1’의 내용 중 ‘군말’, ‘군살’의 ‘군-’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
- ② ‘발표 1’과 ‘발표 2’를 종합해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
- ③ ‘발표 2’의 단어에 ‘멋쟁이’, ‘장난꾸러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피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 ⑤ ‘발표 3’에는 ‘숙제하다’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영수는 ㉠ 집에 가기를 원한다.
- 친구는 ㉡ 밥을 먹기에 바쁘다.
- 영희는 ㉢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
- 그는 ㉣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 ① ㉠은 조사 ‘를’과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은 조사 ‘에’와 결합하여 안은 문장의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
- ③ ㉢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 ④ ㉡과 달리 ㉣의 주어는 안은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과 달리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안은 문장의 목적어이다.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다

① **동사**

① 【...에/에게 ...을】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반의어 주다 ↔ ㉡

②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 / ㉣

③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 동생과 싸웠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핀잔을 주다. / ㉥

받다

① **동사**

① 【...에서/에게서/...으로부터 ...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 남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다.

② 【...을】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 오는 것을 잡다. ㉧ 날아오는 공을 받다.

반의어 받다 ↔ ㉨

③ 【㉩】 흐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

- ① ‘주다㉠’의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은 ‘받다㉠’이다.
- ② ㉣에는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받다㉡’의 용례로 보아 ㉨에는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을 ...에’이다.

15.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체내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물질로 모두 여러 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음식물과 소화액이 섞인 걸쭉한 수용성 혼합물인 미즙의 상태로 소화된다. 탄수화물은 당을,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로 결합되어 있으며 수용성을 띤다. 그러나 지방은 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 1개가 결합한 트리글리세리드가 기본 단위인데, 트리글리세리드는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을 띠며 자기들끼리 쉽게 응집되어 지방 덩어리를 이루는 특성이 있다. 또한 탄수화물은 입과 소장에서,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주로 진행되나 지방은 그 특성으로 인해 소장에서 소화가 주로 이루어진다.

지방의 소화에는 ㉠ 라이페이스(lipase)와 ㉡ 담즙염(bile salt)이 관여한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 침샘, 위, 이자에서 분비되나 입, 위보다는 소장 내강*에서 본격적으로 작용한다.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라이페이스는 지방 덩어리 표면 근처의 분자에만 작용할 수 있어 그 속에 있는 지방 분자를 분해할 수 없다. 쓸개에서 분비되는 담즙염은 지방 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미즙 속에서 라이페이스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담즙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담즙염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함께 갖고 있어 지방 덩어리를 만나면 소수성 부위는 안쪽인 소수성 입자를 향해, 친수성 부위는 바깥쪽인 물을 향해 흡착된다. 그 결과 작은 지방 덩어리로 잘게 쪼개지는데 표면에 흡착된 담즙염의 친수성 부위는 음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어, 서로 반발하므로 재결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담즙염은 지방 소화 효소는 아니므로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하지 못한다. 분해되지 못한 트리글리세리드는 그 성질과 크기로 인해 소장의 상피세포로 들어가기 어렵다.

쪼개진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하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그런데 이들은 소수성이어서 수용성 환경인 미즙 상태에서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수성과 친수성을 함께 가진 담즙염과 레시틴 등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중심으로 내부는 소수성을,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는 형태로 모인다. 이러한 분자 집합체를 미셀(micelle)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미즙에서 상피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후, 미셀에서 떨어져 나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소장에서 소화되어 상피세포로 흡수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필요한 세포로 운반된다.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된다. 그런데 지용성인 트리글리세리드가 혈관에 들어가면 다른 물질들과 뭉쳐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형성하여 혈관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 등의 물질로 포장되어 카일로마이크론(chylomicron)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한다. 하지만 카일로마이크론은 모세혈관을 통과할 만큼 작지 않아 순환 조직인 림프관을 통해 필요한 세포로 운반된다.

* 내강: 동맥이나 소화관과 같은 관상 구조 내부의 비어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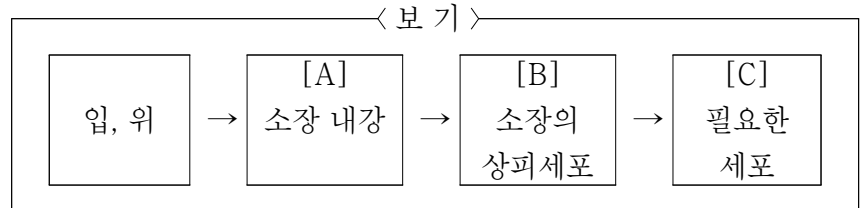
1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방의 재합성 과정
 - 지방의 성질을 중심으로
- ② 지방의 구조와 특징
 - 소장 상피세포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③ 지방의 체내 소화 원리
 - 트리글리세리드의 분해와 운반을 중심으로
- ④ 인체 내 에너지 제공 방식
 - 림프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 ⑤ 인체의 영양분 소화와 흡수 과정
 -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 효소의 차이를 중심으로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친수성과 소수성을 함께 갖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트리글리세리드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이다.
- ③ ㉡은 ㉠과 달리 여러 기관에서 분비된다.
- ④ ㉡은 ㉠과 달리 소수성의 입자들끼리 흡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과 ㉡은 모두 입과 위에서 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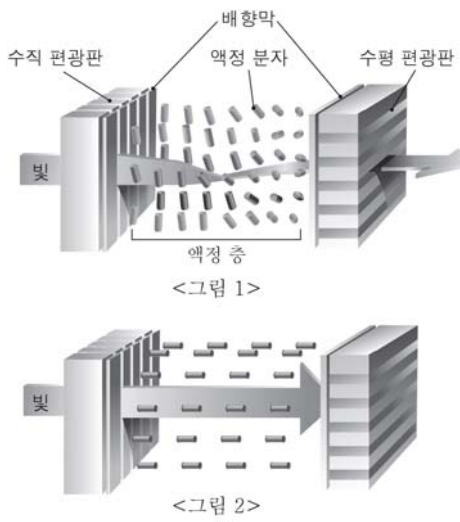
18.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A]~[C]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미셀의 안쪽과 담즙염에 의해 쪼개진 지방의 안쪽은 모두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다.
- ② [B]에서는 응집된 트리글리세리드가 편리한 운반을 위해 쪼개진다.
- ③ [A]에서 분해된 물질들이 [B]로 이동할 때, 담즙염, 레시틴 등과 결합하는 이유는 친수성이 없기 때문이다.
- ④ [B]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이 형성되려면 [A]에서 트리글리세리드가 분해되어야 한다.
- ⑤ [B]에서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C]로 이동하려면 다른 물질과 결합해야 한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액정 디스플레이(LCD) TV로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공이 끌려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잔상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잔상이란 직전 화면과 새로운 화면이 겹쳐 영상이 흐려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잔상 현상이 왜 나타날까?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LCD는 각 화소마다 액정 셀이 있다. 액정 셀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차단하면서 화소 간에 밝기 차이로 영상을 ㉠ 구현하는 장치이다. 액정 셀 안에는 액정 층이 있고, 여기에 액정 분자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 액정 분자들의 배열 방향을 일정하게 해 주는 것이 배향막이다. 배향막 하나는 가로 방향, 하나는 세로 방향으로 고정시키면 액정 분자는 연속체인 특징이 있어 <그림 1>과 같이 90° 비틀린 상태로 배열된다. 이 상태에서 전압을 가하면 액정 분자는 양전하(+), 음전하(-)를 띠는 대전체가 되어 <그림 2>와 같이 전기장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된다. LCD는 이러한 액정 분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노멀 화이트 모드(Normal White Mode)라 한다.

또한 LCD에는 특정한 진동 방향의 빛만을 통과시키는 편광판이 있다. 수직 편광판은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수평 편광판은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킨다. <그림 1>을 볼 때, 빛은 수직 편광판을 통과하여 액정 분자의 배열 방향에 따라 90° 회전하면서 수평 편광판을 통과한다. <그림 2>를 볼 때 빛은 수직 편광판을 통과하나 액정 분자들의 배열 방향이 빛의 진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LCD는 빛의 투과율을 ㉡ 조절하여 화소들의 밝기 단계를 조절한다. 화소의 밝기 단계를 0에서 255 사이의 화소값으로 나타내는데, 0은 가장 어두운 밝기를, 255는 가장 밝은 밝기를 나타낸다. 화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화소들의 화소값을 바꿔 주어야 한다. 그런데 화소값이 전환되는 속도는 화소값의 차이와 전압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이것을 응답 속도라 한다. 다시 말해 응답 속도란 액정 분자가 배열 상태를 바꾸는 속도를 말한다. 이때 변화시키려는 화소값의 차이가 크면 응답 속도는 빠르고, 화소값의 차이가 작으면 응답 속도는 느리다. 또한 목표 밝기에 ㉢ 도달하기 위해 액정 분자에 걸어주는 전압의 크기가 크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전압의 크기가 작으면 응답 속도는 느리다. 가령 0에서 255로 변화될 때의 응답 속도보다 90에서 150으로 변화될 때의 응답 속도가 더 느리다. 또한 목표 밝기의 화소값이 90이라면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전압보다 센 전압을 걸어줄 때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잔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의 세기만 걸어주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가 오버드라이빙이다. 오버드라이빙은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 개선하는 것이다. 가

령 화소값 50에서 목표 밝기 90으로 변화시키려 할 때 90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초과 전압을 걸어주어야 응답 속도가 더 빨라져서 잔상이 개선된다. 그런데 잔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준 높은 전압을 ㉤ 지속시키면 역잔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전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춰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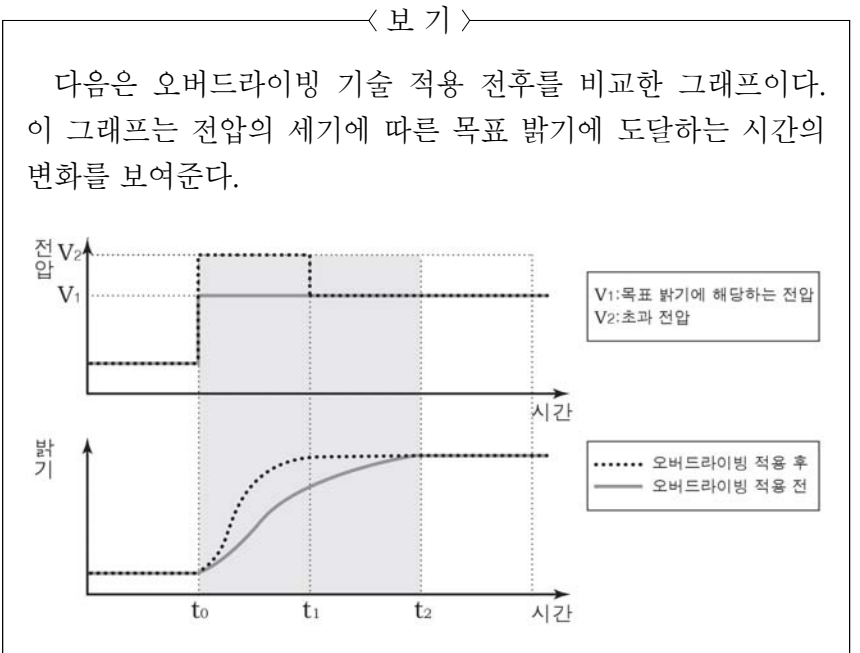
* 역잔상: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초과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나타나는 잔상 현상.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화소의 밝기는 빛의 투과율에 따라 달라진다.
- ② 화소값이 커질수록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 ③ 전압은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
- ④ 배향막은 액정 분자의 배열 방향에 영향을 준다.
- ⑤ 노멀 화이트 모드 방식은 전압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빛을 투과한다.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V₁만 가했을 때 t₀에서 t₂까지는 잔상이 나타나겠군.
- ② V₂를 가하면 t₂에서부터 잔상이 제거되겠군.
- ③ V₁에서 V₂로 변화시키는 것은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겠군.
- ④ V₁보다 V₂를 가했을 때 액정 분자의 배열 속도가 빨라지겠군.
- ⑤ V₂를 V₁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t₁ 이후에는 역잔상이 발생하겠군.

21. 밑글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의 질문에 답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밑글의 <그림 2>에서 빛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① 전압이 가해진 액정 분자가 대전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두 편광판에 고정된 배향막이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③ 연속체의 특징이 있는 액정 분자가 빛을 투과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④ 액정층을 통과하는 빛의 진동 방향이 액정 분자에 의해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⑤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배열된 액정 분자들이 90° 비틀려 배열되기 때문이다.

2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몇 가지 부분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이룸.
- ② ㉡: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
- ③ ㉢: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
- ④ ㉣: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듦.
- ⑤ ㉤: 어떤 일이나 상태가 오래 계속됨.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4년 캐나다에서 소년들이 집과 자동차를 파손하여 체포되었다. 보호 관찰관이 소년들의 사과와 당사자 간 합의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담당 판사에게 건의하였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소년들은 봉사 활동과 배상 등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지고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복귀하였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회복적 사법’이라는 사법 관점의 첫 적용이었다. 이와 같이 회복적 사법이란 범죄로 상처 입은 피해자, 훼손된 인간관계와 공동체 등의 회복을 지향하는 형사 사법의 새로운 관점이자 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인 것이다. 여기서 형사 사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법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형사 사법은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 응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보는 이론으로 형벌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데 지속적인 범죄의 증가 현상은 응보형론이 이미 발생한 범죄와 범죄인의 처벌에 치중하고 예방은 미약하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재사회화론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복귀에 두는 이론이다. 이것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여 장래의 범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도 증가하는 재범률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또한 응보형론이나 재사회화론에 입각한 형사 사법은, 법적 분쟁에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면서 국가와 범죄 행위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회복적 사법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관점은 범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보지만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개인 또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본다. 지금까지의 형사 사법은 주로 범인, 침해당한 법,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피해자는 무시한 채 가해자와 국가 간의 경쟁적 관계에서 대리인에 의한 법정 공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 둘을 조정하는 조정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직접 듣고 죄책감이 들면 그의 감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변화로 피해자도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 등을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하며 더불어 범죄로 피해 입은 공동체를 회복의 대상이자 문제 해결의 주체로 본다.

회복적 사법이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사법을 보완하는 차원 정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대상과의 대조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두 이론을 절충하여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4.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
- ②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
- ③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
- ④ 기존 형사 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벌에 대한 관점
- ⑤ 기존 형사 사법의 관점에서 본 범죄 행위의 의미

2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범인과 침해당한 법에 관심을 둔다.
- ② 응보형론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③ 재사회화론에서는 응보형론과 달리 범죄인의 교육을 통한 교화를 중시한다.
- ④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 문제 해결에 가해자, 피해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 ⑤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6. <보기>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를 수용한 학생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누구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유죄 확정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게 하는 것은 이미 가해자를 유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자신에게 내려질 형벌을 감형시킬 목적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 ① 국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군.
- ②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는 관심이 적으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겠군.
- ③ 현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동체가 회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 입을 수 있겠군.
- ④ 조정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한다면 그 가해자는 유죄로 간주되겠군.
- ⑤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참가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겠군.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N. Poussin)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크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푸생은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조화와 질서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 원리들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한 푸생의 노력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풍경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풍경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의 풍경에는 자연 배경과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 등장한다. 작품 속 자연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이며, 고대의 건축물 역시 배경의 일부로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 이행,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질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따라서 그는 영웅적 인물의 삶을 소재로, 자연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것만을 선별하여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푸생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 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푸생의 풍경화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 ② 푸생은 고대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④ 푸생이 배경의 일부로 사용한 고대 건축물은 주제 구현을 위해 그가 특별히 선별한 대상이다.
- ⑤ 푸생은 풍경화를 그릴 때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 공간을 이용하여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28.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그림은 푸생의 ‘세월이라는 이름의 음악과 춤’이다. 그림의 오른쪽 기둥 옆에는 시간의 신, 왼쪽에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석상, 양쪽 아래에는 아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원형으로 둘러서서 춤을 추는 인물들

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에 따라 ‘봄’(부), ‘여름’(즐거움), ‘가을’(가난), ‘겨울’(힘겨움)을 각각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그리고 ‘부’와 ‘가난’, ‘힘겨움’과 ‘즐거움’이 순환되는 삶의 본질을 강조했다.

- ① 그림의 양쪽에 ‘아기’를 배치한 것은 대칭을 통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 한 것이겠군.
- ② 작가가 배치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 원리를 적용한 것이겠군.
- ③ ‘원형’을 그리며 인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이라는 영원불변한 본질을 드러내려 한 것이겠군.
- ④ 작품 속 인물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은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고대 조각상 중 신화에 등장하는 ‘시간의 신’과 ‘야누스’를 선택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군.

29. <보기>는 푸생의 작품 제작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푸생은 작품을 제작할 때 먼저 주제를 정하고, 간단한 스케치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았다. 그런 다음 작은 밀랍 인형들을 만들어 무대 위에 배우들처럼 배치한 후 그 배치를 바꿔 보기도 하고, 인형들에게 옷을 입혀 보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 ① ‘주제’를 먼저 정한 것은 대상의 변화무쌍함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 ② ‘간단한 스케치’는 감각을 통한 미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③ ‘밀랍 인형’은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④ ‘배치’와 ‘재배치’ 과정은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전체적인 구도’는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모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30.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이 안정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다.
 ② 이 식당의 음식 맛은 내 입에 잘 맞는다.
 ③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네게 잘 맞는 것 같다.
 ④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⑤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1 ~ 3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의 버린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바깥 일 내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중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풍년을 원하노라.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
 두어라 내 집부터 하라 남하니 더욱 좋다.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달구어진 땅이 불이로다
 밭고랑 매자 하니 땀 흘러 땅에 떨어지네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 <제3수>

가을에 곡식 보니 좋기도 좋을시고
 내 힘의 이룬 것이 먹어도 맛이로다
 이 밖에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 <제4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좀 손 보아라
 내년엔 봄 온다 하거든 결의 종사(從事)* 하리라. <제5수>

새벽빛 나오자 백설(百舌)*이 소리한다
 일어나라 아희들아 밭 보러 가자꾸나
 밤사이 이슬 기운에 얼마나 길었는가 하노라. <제6수>

㉠ 보리밥 지어 담고 명아주 국을 끓여
 배끓는 농부들을 진시(趁時)예* 먹여라
 아희야 한 그릇 다오 친히 맛 보아 보내리라. <제7수>

서산에 해 지고 풀 끝에 이슬 맺힌다
 호미를 둘러 매고 달 지고 가자꾸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 <제8수>

— 이휘일, 「전가팔곡(田家八曲)」 —

*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농기구의 일종.

* 입립신고(粒粒辛苦): 낱알마다 맺힌 수고로움.

* 천사만중(千駟萬鍾): 여러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 종사(從事): 농사일을 시작함.

* 백설: 온갖 새.

* 진시(趁時)예: 진작에. 제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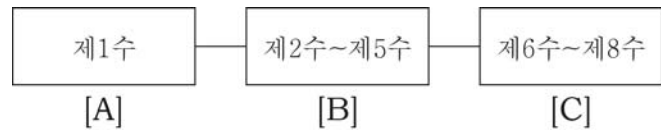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을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은 제1수는 서사로, 제2수부터 제5수는 ‘춘-하-추-동’으로, 제6수부터 제8수는 ‘새벽-낮-저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구조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작품을 자세히 읽고 이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서로 말해 볼까요?

- ① [A]에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어.
 ② [B]에는 사계절에 따라 ‘시작-노고-결실-준비’로 조용되는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어.
 ③ [B]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어.
 ④ [C]는 각 수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
 ⑤ [C]는 하루 동안의 시간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보리밥 푹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노라.
 그 밖의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 윤선도, 「만흥(漫興)」 중 —

- ① ㉠, ㉡는 모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② ㉠, ㉡는 모두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③ ㉠은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는 노동의 기쁨을 드러낸다.
 ④ ㉠에는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에는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에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34.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료 1 작가의 삶

이휘일은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농촌에서 생활하였다. 농민의 삶을 공유하면서도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대부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았다.

자료 2 ‘서전가팔곡후’에서 작가가 창작 동기를 밝힌 글

작가는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에서 ‘농사를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원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알게 된 것을 노래로 나타낸다. <중략>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여 때때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라고 하며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혔다.

- ① [자료1]을 보니,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풍년을 이루어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군.
- ② [자료1]을 보니,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③ [자료1]을 보니, <제6수>에는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료2]를 보니, <제3수>에는 전원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자료2]를 보니, <제4수>에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군.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공이 신부를 데리고 길을 떠나 날이 저물매, 궐궐에 들어가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한방에 들어가더라.

신부 무릎계를 뺄고 앉을새, 그 용모를 보니 형용홍칙하여 보기를 염려론지라. 엷기는 고석 같고 붉은 중에 입과 코가 한데 달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같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넣어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메뚜기 이마 같고, 머리털은 짧고 심히 부하니 그 형용을 차마 보지 못할러라. 상공과 신

랑이 한번 보매, 다시 볼 길 없어 간담이 떨어지는 듯하고 정신이 없어 두 눈이 어두운지라. 상공이 겨우 정신을 차려 다시금 생각하되,

‘사람이 이같이 추비하니 응당 규중에서 늙힐지언정 남의 집에 출가치는 아니할 터이로되, 구태여 나를 보고 허혼하였으니 이 사람이 필연 아는 일이 있을 터이요 또한 인물은 이러하나 이 또한 인생이라. 만일 내가 박대하면 더욱 천지간 버린 사람이 될 것이니, 아무커나 내가 중히 여겨야 복이 되리라.’ 하고, 시백더러 가로되,

“오늘날 신부를 보니 내 집이 복이 많고, 네 몸에 무궁한 경사가 있을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하고, 행로(行路)에 참참이 신부의 마음을 편케 하며 음식도 각검하더라.

여러 날 만에 집에 들어올새, 일가 친척이며 장안 대신택 부인들이 신부 구경하러 많이 모였는지라. 그러구려 신부 들어와 무릎계를 벗고 중당에 앉으니, 그 형용이 어떻다 하리오.

한 번 보매 침 뱉으며 미소하고 수군수군하다가, 일시에 물결 같이 헤어지나, 상공은 회색이 만면하여 외당에 앉아 손님을 대하여 신부의 덕행을 자랑하더라.

상공의 부인이 상공더러 가로되,

“대감께서 한낱 자식을 두어 허다한 장안규수를 다 버리고 허망한 산중 사람의 말을 들어 자식의 일생을 그르치니, 남도 부끄럽고 집안도 낭패할지라. 다시 생각하시어 도로 보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하여 어진 며느리를 얻으면 어떠하오리까?”

상공이 대노하여 부인을 꾸짖어 가로되,

“사람이 아무리 절색이라도 행실이 없으면 사람이 공경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전하는 말이 양귀비 절색이로되 나라를 망치었으니, 오늘날 신부는 내 집의 복이라. 어찌 색만 취하고 덕을 모르리오. 또 우리 부부 만일 불안히 여기면 자식과 집안을 어떻게 조섭(調攝)하리오. 이제는 내 집이 빛날 때를 당하였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리오. 이런 말을 다시 내지 말고, 부디 십분 잘 섬기소서.”

부인이 어찌 사랑하며, 또한 범인이라 그 어찌 소견이 넉넉하리오.

이러므로 부인이 미워하고, 시백이 또한 내방에 거처를 전폐하니, 비복들도 박 씨를 또한 박대하더라.

박 씨 독부가 되어 슬픔을 머금고, 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며 매사를 전폐하니, 일가가 더욱 미워하며 꾸지람이 집안에 가득하되, 다만 상공을 꺼려 면을 못하는지라. 상공이 이 기미를 알고, 노복을 꾸짖어 각별 조섭하며 극히 엄하더라.

또한 시백을 불러 꾸짖어 가로되,

“대법한 사람이 덕을 모르고 색만 취하면 신상에 복이 없고 집안이 망하니, 네 이제 아내를 얼굴이 곱지 않다 하여 구박하니, 범절이 이러하고 어찌 수신제가 하리오. 옛날 제갈공명의 처 황 씨(黃氏)는 인물이 비록 추비하나 덕행이 어질고 천지조화 무궁한지라. 이러므로 공명이 화락하여 어려운 일을 의논하여 만고에 어진 이름을 유전하였으니, 네 처는 신선의 딸이요 덕행이 있으며 또한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하였으니, 무죄하고 덕 있는 사람을 어찌 박대하리오. 비록 금수라도 부모 사랑하시면 자식이 또한 사랑한다 하니 하물며 사람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네 만일 일양 박대하면 이는 나를 박대함이라.”

[A]

【중략 줄거리】 박씨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가산을 일으키고 시백의 장원급제를 도운 뒤 그 동안의 허물을 벗고 절대가인이 된다.

이튿날 되매 시백이 피화당 근처로 배회하며, 방에는 감히 들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되,

‘어서 해가 지면 오늘 밤에는 들어가 전일 박대하고 잘못된 말을 먼저 말하리라.’

황혼을 당하매, 시백이 의관을 정제하니 마음 죄이는 증은 어제보다 조금 나왔으나 생각하던 말은 입을 열어 할 도리 없는 지라. 박 씨는 더욱 단정히 앉아 위엄이 씩씩하니 이른바 지척이 천리라.

설마 장부가 되어서 처자에게 박대함이 있다 한들 그다지 말 못할 바가 아니로되 3, 4년 부부간 지낸 일이 참혹할 뿐, 박 씨 또한 천지 조화를 가졌으니 짐짓 시백으로 말을 붙이지 못하게 위엄을 베풀이라.

㉠이러하기를 여러 날을 당하매, 시백이 철석간장인들 어찌 견디리오. 자연 병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형용이 초췌하니, 어화 이 병은 편작(扁鵲)인들 어이하리오. 승상이 전념하여 조심하시고 일가 황황한들 시백이 말을 감히 못하고 박 씨 혼자 아는지라.

하루는 박 씨 황혼을 당하매, 계화로 하여 시백을 청하는지라. 시백이 박 씨 청함을 듣고 전지도지(顛之倒之)*하여 ㉡피화당에 들어가니, 박 씨 안색을 단정히 하고 말썽을 나직히 하여 가로되,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어려서는 글 공부에 잠심하여 부모께 영화와 효성으로 섬기며, 취쳐하면 사람을 현숙히 거느려 만대 유전함이 사람의 당당한 일이온대, 군자는 다만 미색만 생각하여 나를 추비하다 하여 인류에 치지 아니하니, 이러하고 오류에 들며 부모를 효양하오리까. 이제는 군자로 하여금 여러 날 근고할 뿐 아니라, 군자로 마음이 염려되어 전의 노정을 버리고 그대를 청하여 말썽을 고하나니, 일후는 수신제가하는 절차를 전같이 마옵소서.”

하고 말썽이 공손하니 시백이 이때를 당하여 마음이 어떻게 하리오. 공손 답하여 가로되,

“소생이 무지하여 그대에게 슬픔을 끼치니 이제는 후회막급타. 부인이 이렇듯 해로하시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

* 전지도지(顛之倒之): 앞드러지고 곱드러지며 아주 급히 달아나는 모양.

— 작자미상, 「박씨전」 —

3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공은 인물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보이고 있다.
- ② 승상과 일가에서는 시백이 아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③ 상공 부인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혼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 ④ 박 씨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복들의 조력으로 견뎌낸다.
- ⑤ 시백은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박 씨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자신의 실수를 언급하며 상대를 달래고 있다.
- ② [A]와 [B]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는 유교적 명분을 들어 질책하고 있고, [B]는 유교적 명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을, [B]에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다.

37. 윗글의 내용을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객점	㉣ 중당	㉤ 외당	㉥ 피화당

- ① ㉥에서 ‘시백’은 ㉡에서 비롯된 ‘박 씨’에 대한 마음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② ㉡에서는 ‘박 씨’의 외모가 드러나고 ㉥에서는 ‘박 씨’의 인품이 드러난다.
- ③ ㉡에서의 ‘승상’의 결심은 ㉤에서 ‘박 씨’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 ④ ㉣에 있는 ‘박 씨’를 본 ‘부인들’과 ㉤의 ‘상공’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시백’의 태도는 ㉤의 ‘승상’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생긴 것이다.

38. 윗글을 읽은 독자가 ㉠에 대해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시백이 그동안 얼마나 () 했을지 짐작할 수 있군.”	

- ① 군자삼락(君子三樂)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④ 건강부회(牽強附會)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동무, **특병동**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시오. 원장 동무가 직접 나와보구 야단났습네다래.”

“여긴 더 위급한 환자가 있소. 수술 중이라 꼼작할 수가 없소.”

한 교수는 나지막한 의자에 누운 **아이**의 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 동무도 어디루 갔는지 자리를 비웠시오. 지금 사방으루 찾아댕기맨 법석이라두요.”

“끝나면 곧 가겠다고 전하십시오.”

“다 알아서 하시잖디만…… 가서 보고를 하디요.”

한영덕 교수가 밖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주의를 돌리고 나서 옆에 섰는 두 사람에게 속삭였다.

㉠ “간호원과 조수 두 분은 빨리 나가시오.”

간호원이 말했다.

“우리가 어케 손씨를 테니 선생님 날래 가보시라요.”

한 교수는 그들의 등을 밀어 내보내고 침착하게 바늘귀에 실을 꿰었다. 재봉실에 보통 바늘이었지만, 별로 손색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거친 음성과 구둑발 소리가 다가왔으나 ㉡ 그는 첫 바늘을 꿰어 실이 팽팽해질 때까지 살포시 잡아당겼다.

방공호의 통로를 몸 그림자로 가리고서 원장이 성급하게 소리쳤다.

“뭘 하구 있는 거요?”

한 교수는 봉합 부분을 잘 살피기 위해 아이의 몸 가까이 무릎을 꿇었다. 방공호 안의 어둠에 눈이 익은 원장이 그 광경을 들여다보고 어처구니없다는 듯 혀를 찼다.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경무원이 기층소사의 관통상을 입구 피를 흘리는데 이런 따위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요?”

한영덕 씨는 침착하게 바늘을 들고 섬세한 솜씨로 장의 천공 부위를 꿰매어나갔는데, 경험 많은 외과 전문의에 못지않은 훌륭한 솜씨였다.

[A] “관통상은 압박붕대 처리만 해놓으면, 몇 시간이라두 견딜 수 있습니다.”

지혈검자를 떼어내고 혈관을 묶는 동안 피가 그 작은 몸에서 샘처럼 솟구쳐 한씨의 손과 방공호 바닥을 적셨다. 원장이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고발하겠소.”

“좀 비켜주시오. 어둡습네다.”

한 교수의 이마에서 땀이 솟아나 불을 타고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부분의 봉합을 끝내고서 얼굴을 들었다. 호의 통로에서 잔광이 비껴 들어왔다. 싱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들의 건강한 잎새 사이로 석양이 물발처럼 퍼져 나와 여기저기 누운 환자들의 몸 위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두 손바닥을 벌려 눈앞에 갖다 댔다. 피가 검게 말라붙은 손톱이며 손가락 틈을 뚫고 햇빛은 여전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잠적해버린 서학준 교수의 행방도 추궁했으나 한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씨는 **지하실**에 일주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층의 깨끗하고 밝은 방에 불리어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방은 벽이 온통 회색 칠해져 있었고 매일 다른 심문자가 두 사람씩 교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수는 축축한 냉기 속에서 밤을 지낸 다음 아침마다 그 방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예상 외로 침착한 것에 놀라곤 했다.

[중략 줄거리] 북한에서 처형의 위기를 간신히 넘겨 살아남은 한영덕은 가족을 두고 홀로 월남하여 서학준과 여동생 한영숙과 재회한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박가, 김가와 동업을 하지만 박가의 불법 중절 수술로 갈등을 빚는다. 박가의 불법 수술 도중 환자가 위험해지자 한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해 주고 곧 병원을 그만둔다. 무면허 영업 단속을 받은 박가는 한씨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그를 간첩으로 고발하고, 정보대 문관 민상호는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다. 한영숙은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한씨를 면회하러 간다.

한영덕 씨는 훨씬 늙어 보이는 대신 진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남엔 혈육이라곤 누이동생 하나하구, 친구는 서 선생님밖에 없으니끼니 아무두 믿디 말라요.”

“기래. 알겠다.”

“오라바니, 휴전이 됐시오. 어제 협정이 끝났대요.”

한영덕 씨는 한참 동안이나 눈두덩을 손끝으로 짚어 누르고 있었다.

“…… 되구 말았구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나, 한 여사는 꼭 전해야 할 말을 간직해두고 있었다. 정보대에서 고문하면서, 시인했던 사실을 재판 때에 부정하면 다시 정보대로 돌려보내어 처음부터 조사를 새로 할 거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알려야겠는데 간수가 면회일지에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적고 있었다. 그 여자는 기록을 피하고 싶었다. 간수가 일지를 덮고 나서 문을 열었고, 한영덕 씨가 따라 일어섰을 때 한 여사가 그들의 등 뒤에다 대고 말했다.

㉢ “오라바니, 정보대서 한번 넘어왔으문 다신 보내지 못한대요. 걱정 말고 안 한 건 하지 않았대구 끝까지 우기시라요.”

한씨는 붉게 충혈된 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 그 여사는 법원에다 진정서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한씨의 친구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른 일은 몰라도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발뺌했다. 하는 수 없이 한 여사 자신과 서학준 소령, 고동수 박사, 세 사람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올렸는데도 중도에서 탈락됐는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재판은 자꾸 연기되었다가 한씨가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건은 일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씨는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자궁 척출**에 관한 사건이었다. 한씨가 환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뒷수습으로 수술했던 일이었다. 정보대에서는 투서한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며 박가, 김가, 이가에게서 돈을 많이 뜯어낸 모양이었다. 사소한 감정으로 한씨를 찍어 넣었던 그들은 손해를 예상외로 많이 입게 되자 — 에라 내친김이다. 한영덕이 죽어버려라 하며 사건을 들쭉서냈던 거였다. 검사 측에서도 수개월씩 가두었던 자를 생판 무죄로 내보내느니 면목을 세워야 했으므로, 재수사를 해서 의료법으로 입건을 했었다. 서학준 씨도, 한 여사도 한영덕 씨의 실수였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자들이 뒤집어쓴 것을 한씨는 밝혀내기도 지켰을 것이며, 또한 그 일만큼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그는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몰랐다.

언도 결과는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시킨 죄에 해당되는 1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였다. 한씨 주변 사람들은 판결이 표면상으로는 의료법을 적용했으나 사실은 정치적 인상이 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여사가 재판정을 나오다가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의 네 사람이 나란히 어울려 가는 뒤를 쫓아가 길을 막았다. 그 여자는 창백하게 질려서 어깨까지 떨었다.

“우리 오라바니가 들으시문 섭섭해할 거디만, 만약에 오라바니가 아니구 ㉔ 내 남편이었으면 너이는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칼 맞추 죽었을 거다.”

민상호가 웃으면서 한영숙 씨의 어깨를 잡아 한쪽으로 비켜세우고 대꾸했다.

㉔ “야, 참으라우. 다 참아줘야 살인죄두 면할 거 아니가.”

“너이 뼈를 갈아 한강물에다..... 아니 기러문 한이 맺혀서 안 되겠다. 이땀에 내 고향 대동강에 개져다가 훌훌 뿌리겠다.” 한 여사의 볼 위로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 황석영, 「한씨연대기」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해석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독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40.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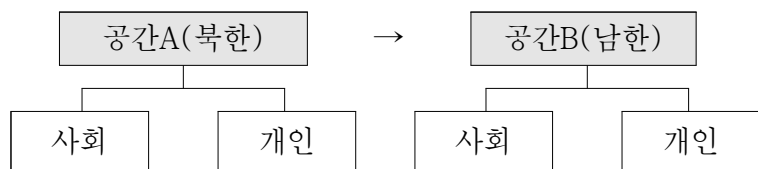
- ① ㉑: 간호원과 조수를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㉒: 자신에게 닥칠 상황에 대한 한영덕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 ③ ㉓: 한영덕을 걱정하는 한 여사의 당부가 드러나 있다.
- ④ ㉔: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에 대한 한 여사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 ⑤ ㉔: 한 여사에 대한 민상호의 빈정거림이 드러나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서로 다른 두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공간에서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여 준다. 주인공은 각 사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 내려 하지만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준다.



- ① 공간A에서 인물에게 ‘특병동’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공간B에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공간A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행위와 공간B에서 ‘자궁 척출’ 수술을 한 행위는 모두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군.
- ③ 공간A에서 인물이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④ 공간B에서 인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 주는군.
- ⑤ 공간B에서 인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개인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42. [A]를 <보기>의 회곡으로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두 사람이 수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원장이 들어온다.)

원장 한 동무! (수술하던 한영덕과 간호원 흠칫 놀란다.) 특병동에 위급한 환자를 보내고 여기서 뭐하는 거요?

한영덕 여기에 더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 중이라 꼼짝할 수 없습니다.

원장 (화를 억제하며 수술대로 와서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특병동에는 경무원이 기총소사로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따위 일에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한영덕 낭비가 아닙니다. 관통상은 압박붕대 처리만 해 놓으면 몇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원장 한 동무, 고발하겠소.

한영덕 어둡습니다. 비켜 주시구레.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

한영덕 (핀셋으로 파편을 집어 들고) 파편을 꺼냈소. 이 무쇳조각. 누구래 어디서 만들어 낸 거인지.....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 ① 원장이 퇴장하는 모습과 표정을 추가하여 원장의 심리를 부각시키자.
- ② 조명의 변화와 음향효과를 활용하여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자.
- ③ 상징적인 소재와 그에 관한 대사를 삽입하여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자.
- ④ 원장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을 추가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자.
- 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자.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람은 자도 마음은 자지 않는다
 철들어 사랑이며 추억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싸움은 동산 위의 뜨거운 해처럼 우리들의 속살을 태우고
마음의 배고픔이 출렁이는 강기슭에 앉아
 종이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절망의 노래를 불렀다
 정이 들어 이제는 한 발짝도 떠날 수 없는 이 땅에서
 ㉠ 우리들은 우리들의 머리 위를 짓밟고 간
 많고 많은 이방의 발짝 소리를 들었다
 ㉡ 아무도 이웃에게 눈인사를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불태우지 않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서 두려움에 떠는
 눈짓으로 술집을 떠나는 사내들과
 두부 몇 모를 사고 몇 번씩 뒤돌아보며
 골목을 들어서는 계집들의 모습이
 ㉢ 이제는 우리들의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
 사랑은 가고 누구도 거슬러 오르지 않는
 ㉣ 절망의 강기슭에 배를 띄우며
 우리들은 이 땅의 어둠 위에 닳을 내린
 ㉤ 많고 많은 풀포기와 별빛이고자 했다.

— 곽재구, 「절망을 위하여」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음성 상징어를 구사하여 시적 생동감을 부여한다.
- ③ 의문형 진술의 사용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한다.
- ④ 부정적 서술어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
- ⑤ 처음과 끝을 유사한 구조로 상응하여 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44. **마음의 배고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이 땅’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강화한다.
- ㄴ. 화자가 ‘절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 ㄷ. ‘이방의 발짝 소리’의 주체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나타낸다.
- ㄹ. ‘사랑’과 ‘추억’이 결핍된 상태에 대한 화자의 심리를 비유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5. <보기>를 참고하여 ㉠ ~ ㉤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암울했던 당대의 사회 현실과 관련이 깊다. 시인은 자유가 억압된 삭막한 현실과 민중들의 불안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화자를 등장시켜 현실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① ㉠은 당시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은 주변에 대해 관심조차 줄 수 없는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삭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은 민중들이 불안과 공포가 일상화된 현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은 억압적인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민중들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군.
- ⑤ ㉤은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